KOSDAQ | 식품,음료,담배

이지바이오 (353810)

글로벌 사료첨가제 기업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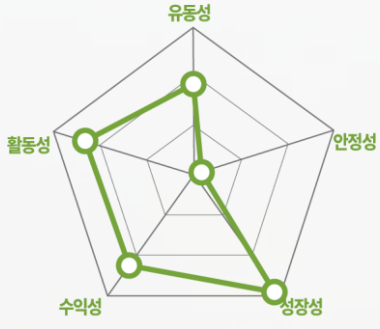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이지바이오는 자돈사료 및 사료첨가제 제조 기업으로, 과거 자돈사료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데브니쉬 인수 이후 미국 시장 진출 및 사료첨가제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
- 2024년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외형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데브니쉬 실적 온기 반영 및 인수 이후 조직 안정화 영향 등으로 2025년 매출액 4,635억원(+20.6% YoY), 영업이익 419억원(+29.2% YoY)으로 실적 큰 폭 증가 전망
- 2026년 매출액 4,836억원(+4.3% YoY), 영업이익 464억원(+10.7% YoY)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지속적인 M&A를 통한 사업 확대, 이지바이오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한 기능성 첨가제 매출 확대, 데브니쉬 미국 영업망 확대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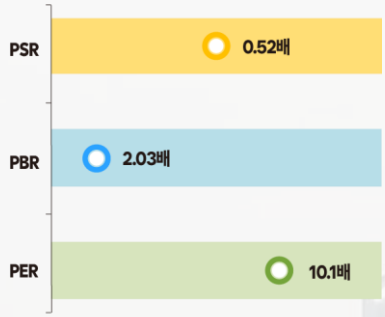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필수소비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필수소비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이지바이오 (353810)

KOSDAQ
식품,음료,담배

Analyst 조영환 yh.cho@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이지바이오는 자돈사료 및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

이지바이오는 축산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기업으로, 사업부문은 크게 첨가제부문과 사료부문으로 구분되며 3Q25 누적 기준 매출비중은 첨가제부문 78%, 사료부문 22%로 구성. 국내 시장에서는 자돈사료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M&A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사료첨가제 사업 비중이 크게 확대

2024년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북미 사업 확장 및 외형 확대

2024년 이지바이오는 북미 지역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데브니쉬를 약 880억원에 인수하여 2025년 3분기 기준 지분율 98.6% 보유.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첨가제 사업 중심의 외형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미국 시장 내 기능성 사료첨가제 포트폴리오에 집중함으로써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2025년과 2026년 영업이익은 각각 YoY 29.2%, 10.7% 성장 전망

2025년 이지바이오 연간 매출액 4,635억원(+20.6% YoY), 영업이익 419억원(+29.2% YoY)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 전망. 이는 2024년 3월 인수한 데브니쉬 실적의 온기 반영과, 데브니쉬 법인의 실적 정상화 영향에 기인. 2026년에도 매출액 4,836억원(+4.3% YoY), 영업이익 464억원(+10.7% YoY)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지속적인 M&A를 통한 사업 확대, 이지바이오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한 기능성 사료첨가제 매출 확대, 데브니쉬 미국 영업망 확대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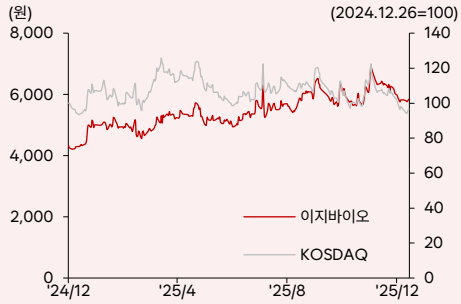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원)	1,556	1,654	3,843	4,635	4,836
YoY(%)	20.2	6.3	132.4	20.6	4.3
영업이익(억원)	162	206	324	419	464
OP 마진(%)	10.4	12.5	8.4	9.0	9.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91	155	196	228	299
EPS(원)	267	455	573	683	904
YoY(%)	-16.0	70.2	26.1	19.2	32.3
PER(배)	15.1	8.0	7.3	8.5	6.6
PSR(배)	0.9	0.7	0.4	0.4	0.4
EV/EBITDA(배)	9.1	5.7	6.0	5.0	4.4
PBR(배)	2.8	2.0	1.7	1.9	1.6
ROE(%)	19.7	27.6	26.7	24.7	26.8
배당수익률(%)	1.9	2.8	4.8	3.4	3.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9)		6,000원
52주 최고가		6,900원
52주 최저가		4,330원
KOSDAQ (1/9)		947.92p
자본금		34억원
시가총액		1,985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3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6억원
외국인지분율		4.06%
주요주주	이지홀딩스 외 3 인	51.5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7	11.9	37.6
상대주가	-8.3	-6.7	5.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회사개요

이지바이오는 축산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사료첨가제 사업으로 적극 확장 중

이지바이오는 1988년 설립된 축산용 자돈사료 및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이다. 인적분할 이전 법인은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업부문이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다. 이 과정에서 존속법인 이지홀딩스와 신설법인 이지바이오로 구분되었고, 이지바이오는 2020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되었다.

사업 초기 이지바이오는 사료 배합 소프트웨어 및 기술 용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축산업 내 생산성 개선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로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사료용 효소제와 생균제의 국산화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사의 대표 사료첨가제인 Endopower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축적된 첨가제 기술을 자돈사료 사업으로 확장하며, 2004년 자돈사료(생후 약 60일까지 급여되는 사료) 전문 브랜드 '아이피드(ifeed)'를 출시하였다. 동사는 면역 증강제 및 생균제 기술을 자돈사료에 차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질병 저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자돈사료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당시 이지홀딩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04년 457억원에서 2010년 822억원으로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대부터는 해외 사업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2011년 영국 Pathway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태국·베트남·스페인·미국 등으로 현지 법인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료첨가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였다. 2024년에는 미국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인 데브니쉬를 약 880억원에 인수하며, 세계 최대 축산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에 생산 및 유통 거점을 확보하였다. 인수 효과에 힘입어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2% 증가했으며, 첨가제 부문 매출 비중 역시 2023년 57%에서 2024년 75%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2026년 1월에는 미국 BioMatrix를 추가로 인수하며 북미 시장 내 제품 라인업과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지바이오 연혁

1988~2000		2001~2013		2014~	
1988	회사 설립	2001	갓난돼지 전문사료 공장 준공	2014	EASY BIO Middle East 사무소 설립
1989	영국 Format Solutions사 사료 배합 소프트웨어 독점 공급 계약 체결	2004	**갓난돼지 사료 브랜드 '아이피드(iFeed)' 출시**	2014	FAMI-QS 인증 획득(EASY BIO, PII)
1994	불활성 효모 및 섬유질 사료 제조업 허가 획득	2006	이지바이오 입장공장 HACCP 인증	2015	EASY BIO Thailand 사무소 설립
1995	바이오소재연구소 설립	2008	엔도파워 미국 ADM사 공급 개시 (국내 기업 최초 효소제 미국 판매)	2015	PII (Nantong) Bio-Tech Co., Ltd. 설립
1996	대용유 사업 허가 승인	2010	이지 동물자원 연구농장 신설	2017	Pathway Thailand 설립
1996	배합사료 사업 허가 승인	2010	**아이피드 국내 갓난돼지 사료 시장 1위 달성**	2019	Pathway USA 설립
1996	(주)이지시스템에서 (주)이지바이오시스템으로 상호 변경	2011	영국 합작법인 Pathway Intermediates International(PII) 설립	2019	Pathway Vietnam 설립
1998	캐나다 합작투자회사 Esys Bioferm, Inc. 설립 (엔도파워 생산)	2012	(주)이지바이오시스템에서 (주)이지바이오로 상호 변경	2020	**회사 분할(신설법인 이지바이오 설립)**
1999	**KOSDAQ 상장**	2012	GMP 인증 획득(EASY BIO, PII)	2021	Pathway Chengdu 설립
		2013	PII 리피돌 생산공장 준공	2024	**미국 Devenish Nutrition LLC 인수**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요사업

주요 사업은 첨가제부문과 사료부문으로 매출비중 각각 78%, 22% 차지

이지바이오의 사업은 첨가제부문과 사료부문으로 나뉘며 3Q25 누계 기준 매출 비중은 각각 78%와 22%를 차지한다.

첨가제부문

이지바이오의 사료첨가제 부문은 발효, 효소공학 등 고도화된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사료 내 영양소 이용률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안정화함으로써 가축의 성장 효율과 사료 전환율을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는 곡물 사료의 소화율을 보완하는 효소제 '엔도파워(Endopower)'와 사료 내 지방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개선하는 에너지 흡수 촉진 유화제 '리피돌(Lipidol)'이 있다. 이 밖에 항생제 사용 규제 강화에 따른 대안으로 주목받는 생균제 및 천연 항균 물질 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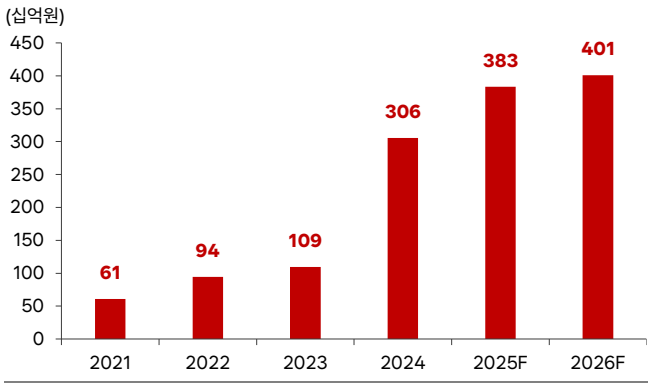
사료첨가제는 영양적 목적의 범용첨가제와 기능성 첨가제로 구분된다. 범용첨가제는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기능성 첨가제는 곡물가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데브니쉬 인수 이전 이지바이오는 자사 개발 효소제, 생균제 등 수익성이 높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24년 동사는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범용첨가제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으며,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성 첨가제 사업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료첨가제 주요 제품

제품분류	제품명	특징	장점
효소제	Endopower	곡물 내 비전분 탄수화물의 소화 극대화	고상발효를 통한 가축 사료 최적화된 효소 구성, 우수한 내열성 및 내산성
유화제	Lipidol	장 내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 촉진	높은 함량의 라이소인지질 함유로 가축 장내 영양소 흡수 촉진 극대화
미생물제	ProBe-Bac	병원균에 대한 특이적 억제 효과	특정 병원균에 작용하는 박테리오파지 개발로 항생제 대체 효과 극대화
미생물제	YeaMune-UP	가축 면역력 개선	고분자와 높은 함량의 베타글루칸이 가축 장내 면역력 강화
미생물제	Genikan	기호성 증진, 가축 생산성 개선	이지바이오의 우수한 효모 발효 기술이 탄생시킨 최고 사양의 효모 배양물
미생물제	FermKito	계란 품질 강화, 가축 생산성 개선	게 껍질과 이지바이오의 고상 발효 기술을 통한 천연 키토산 제품
추출제	Q-Life	육계 장 건강 촉진	육계에서 가장 큰 문제인 콕시듐을 예방하기 위한 천연제재
미네랄제	GrowMax	돼지 성장 촉진	Cr-picolinate 성분이 돼지의 근육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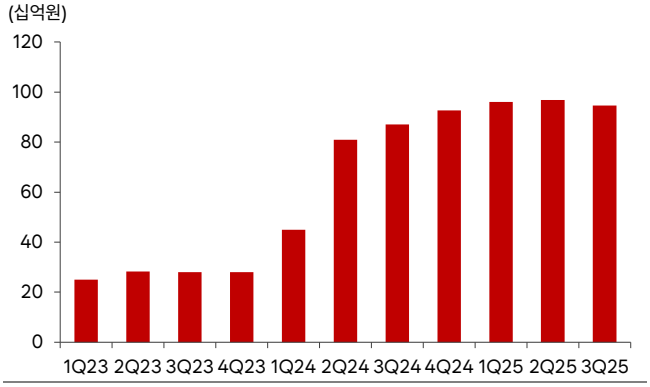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첨가제부문 연간 매출액 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첨가제부문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료부문

일반 배합사료와 달리, 기술 장벽이 높은 자돈 전용 사료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자돈사료는 출생 이후 이유 과정을 거쳐 생후 약 60일까지 급여되는 사료로, 성장 초기 개체의 건강 상태와 이후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기술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사료 대비 수익성이 높고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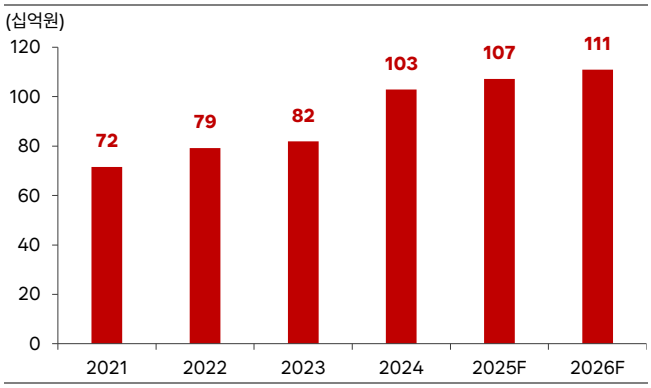
동사는 자체 보유한 첨가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대표 제품인 아이원(i-ONE)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자돈사료 라인업을 통해 국내 자돈사료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지바이오 자돈사료 주요 제품

출시연도	제품명	장점
2008년	피기 G	장 건강 개선을 통한 자돈 성장 안정화 및 증체 균일화에 초점
2010년	아이원	특수 가공 원료 적용과 항영양인자 저감을 통해 장내 안정성과 섭취량 개선
2016년	킹스밀	고품질 동물성 단백질 및 지방 소스 최적화 배합을 통한 단백질 이용 효율 증대
2019년	마이다스	자돈의 장 융모 발달과 성장 효율 개선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중심으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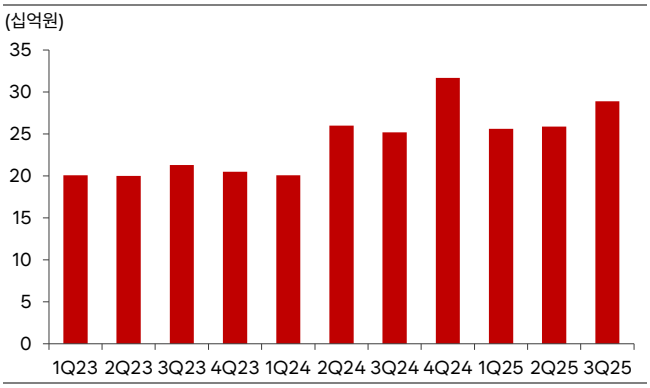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사료부문 연간 매출액 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사료부문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 기업

사료첨가제 중심 자회사 보유하고 있으며 데브니쉬가 핵심 자회사

Pathway Intermediates

패스웨이 인터미디에이츠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지바이오의 글로벌 사료첨가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그룹 전체의 R&D를 주도하고 있다. 2001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후 이지바이오와 2011년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년 이지바이오 그룹에 편입되었으며, 3Q25 기준 81.36%의 지분을 이지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다. 패스웨이와의 합작법인 설립 이후 이지바이오는 태국, 베트남, 스페인, 미국 등지에 현지 패스웨이 법인을 설립하며 내수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해외로 본격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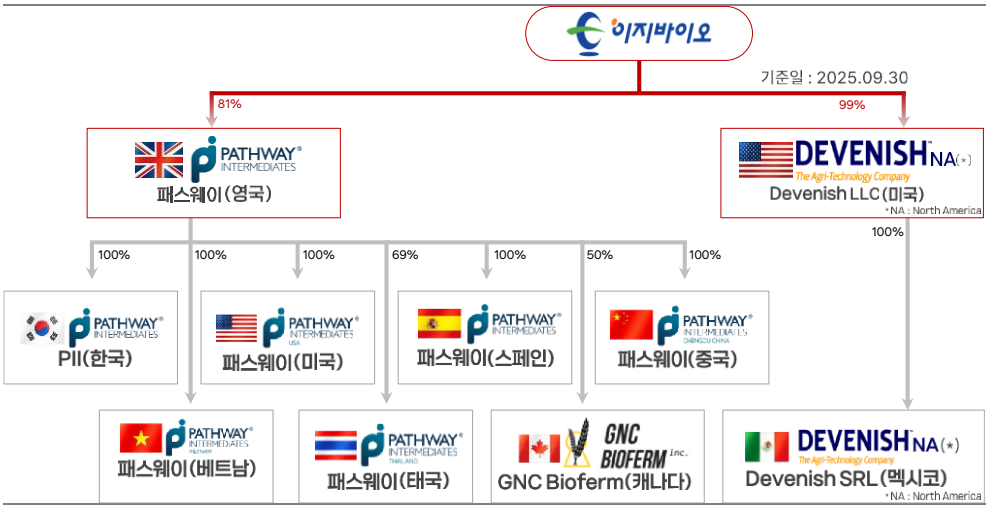
Devenish

데브니쉬는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미국 내 4개 공장과 멕시코 내 1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사료첨가제 판매를 넘어, 맞춤형 영양 설계와 컨설팅을 포함한 가축 영양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4년 이지바이오는 미국 지역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데브니쉬를 약 88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은 98.6%에 달한다. 데브니쉬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124억원으로, 데브니쉬를 제외한 이지바이오 영업이익(200억원)의 약 62% 수준이다. 매출액 역시 2,182억원으로, 데브니쉬 제외 이지바이오 매출액(1,662억원)을 상회한다. 이지바이오는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미국 축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으며, 미국 내 생산 인프라와 유통망을 기반으로 기능성 첨가제 중심의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Biomatrix

이지바이오는 데브니쉬에 이어 미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패스웨이 미국법인을 통해 바이오매트릭스의 지분 100%를 올해 1월 인수하였다. 1997년 설립된 미네소타 기반의 기능성 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영양소의 체내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다당류 코팅 기술(Polysaccharide Coating Technology)'을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지방 코팅 방식보다 미생물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사료 효율을 개선하는 특징이 있다. 동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반추동물(소) 분야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지바이오 종속기업 현황(3Q25 기준)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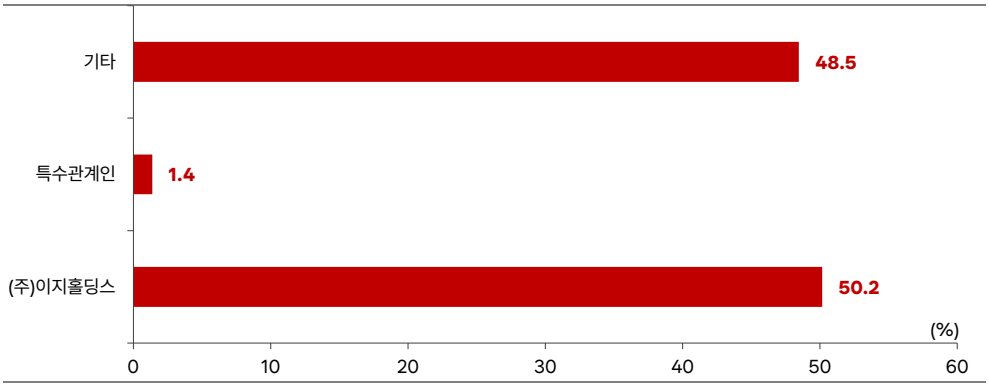
주주현황

모회사 이지홀딩스가 단독으로 과반 지분 확보하며 지배력 강화

이지바이오는 2025년 3분기 기준 이지홀딩스의 지분율 50.2%, 특수관계인 지분율 1.4%로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다. 동사는 2020년 5월 인적분할 이후 최대주주인 이지홀딩스의 지배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분할 이후 2021년 말 약 25% 수준에 불과했던 이지홀딩스의 지분율은 2024년 말 48.5%까지 확대되었으며, 2025년 3분기에는 50.2%를 기록하며 모회사인 이지홀딩스가 단독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 지배력이 한층 공고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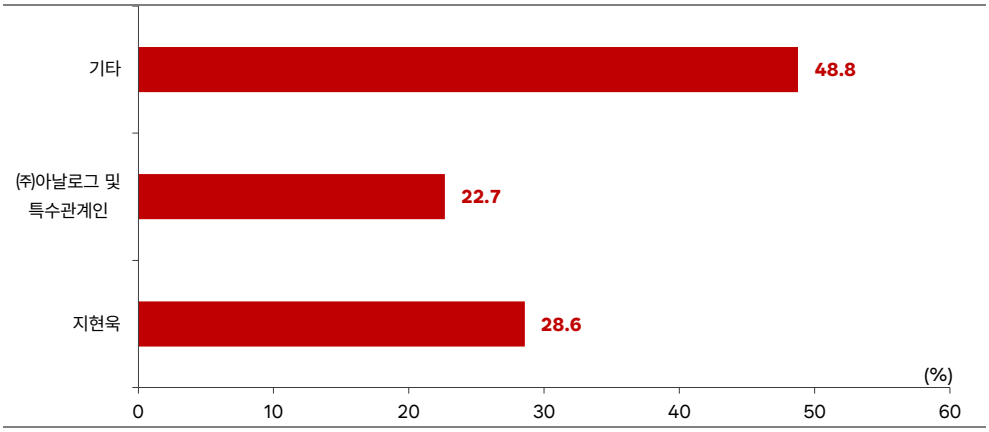
지배회사인 이지홀딩스 역시 2025년 3분기 기준 최대주주인 지현욱 회장이 2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 법인인 아날로그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22.7%를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51.2%로 과반 이상의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지바이오 주주현황(3Q25 기준)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홀딩스 주주현황(3Q25 기준)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축산시장 효율화에 따른 사료첨가제 수요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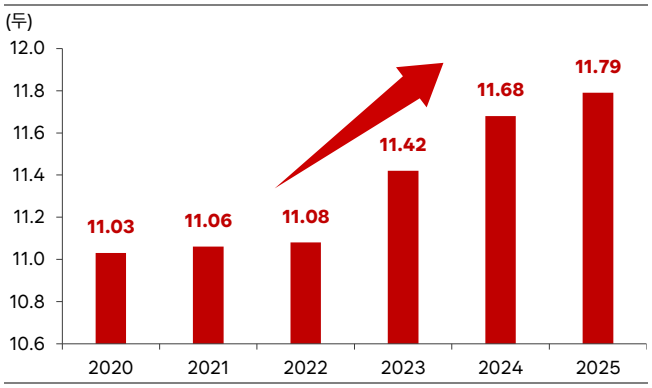
글로벌 축산시장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지표 지속 개선 중

글로벌 축산시장은 점진적으로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료첨가제에 대한 수요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축산업이 단순 사육두수 확대 중심의 양적 성장 국면이었다면, 최근에는 농가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대형 농가 중심의 규모화, 자동화 설비 도입, 표준화된 사양관리 체계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지표 중 하나는 계체당 생산성 지표이다. 실제로 미국 양돈 산업을 살펴보면, 복당 이유자돈수(모돈이 한 차례 분만 후 이유 시점까지 생존한 자돈의 평균 두수)는 2021년 11.06두에서 2025년 11.79두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전자 개량, 사육 환경 개선, 질병 관리 고도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사육 효율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장 건강, 면역력, 증체 효율을 보조하는 사료첨가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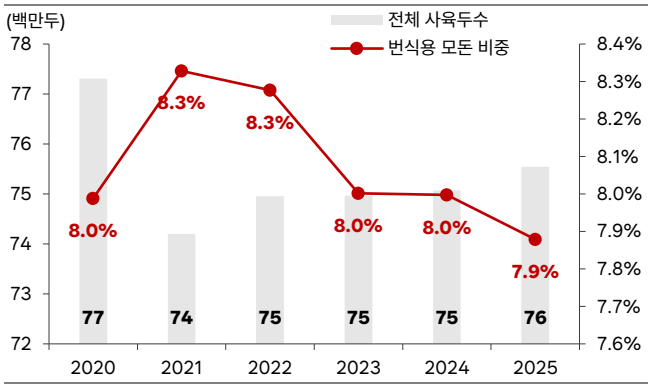
축산 농가의 효율화가 가속화되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비용 압박이 존재한다. 사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약 60%로 추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질병 리스크는 농가 경영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사율 관리, 사료요구율(FCR) 개선, 균일 증체 유도 등 정량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항생제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항생제 대체 솔루션으로서의 사료첨가제 활용도 역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미국 돼지 복당 이유두수 추이(Pigs per litter)



주: 2025년은 11월 기준
자료: USD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돼지 사육두수 및 번식용 모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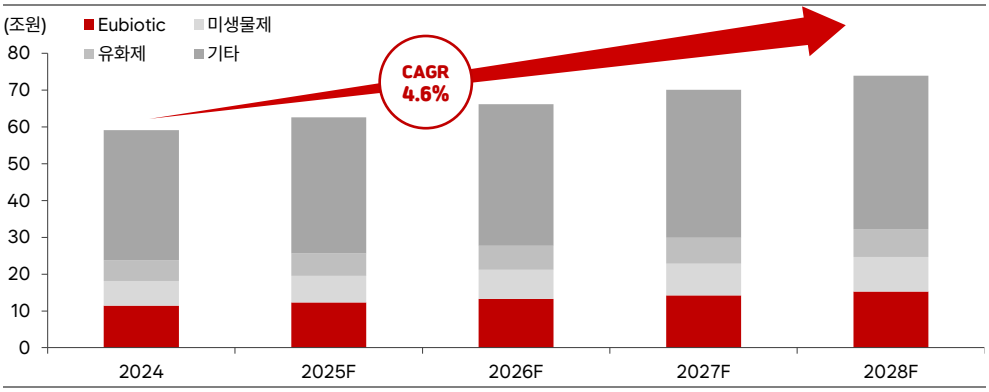


주: 2025년은 11월 기준
자료: USD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4년 사료첨가제 시장규모 59조원으로 28년까지 연평균 4.6% 성장 전망

이에 따라 글로벌 사료첨가제 시장은 2024년 59조원 규모에서 2028년 74조원 규모로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첨가제는 농가의 생산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첨가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미국 시장은 대형 농가 비중이 높고 생산성 지표 기반의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어 있어, 고부가 사료첨가제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지바이오는 2024년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생산, 영업 거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향후 데브니쉬를 미국 내 전초기지로 삼아 기능성 사료첨가제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사료첨가제 시장규모 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우호적인 지육돈 가격, 안정적인 사료 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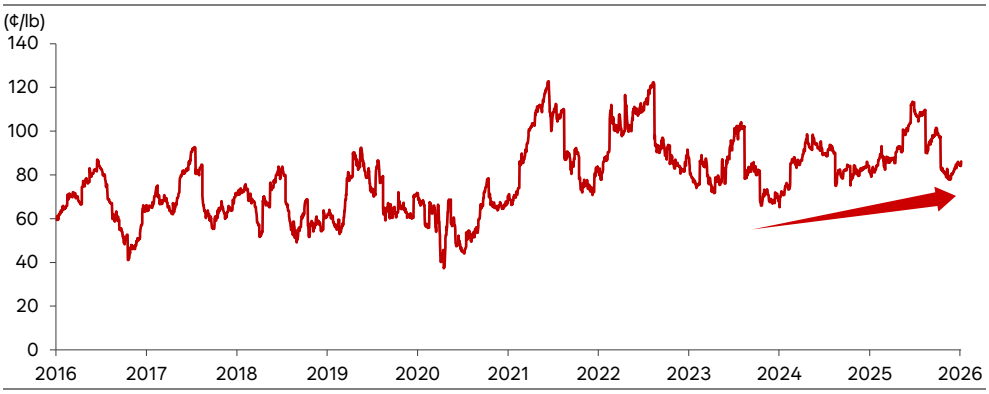
우호적인 지육돈가격과 안정적인 사료 원가로 미국 첨가제 사업에 긍정적 환경

최근 미국 지육돈 선물 가격은 저점을 높여가며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p.11 차트 참조). 특히 2025년 2~3분기 가격이 한 차례 급등하였는데, 이는 여름 PRRSV(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돼지 공급 감소와 함께, 소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가 돼지고기로 이동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에도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육돈 가격은 높은 레벨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USDA는 2025년 12월 ERS(Economic Research Service) 전망을 통해 소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 돼지고기 수출 호조 등에 따라 2026년 지육돈(Carcass Basis) 현물 평균 가격이 파운드 당 64~65센트 수준으로 2024년(63.4센트), 2025년(68.6센트)에 이어 견조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환경은 양돈용 제품 매출 비중이 높고,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데브니쉬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농가의 사육 의지는 강화되고 출하 속도를 앞당기려는 니즈가 확대되어,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료첨가제 수요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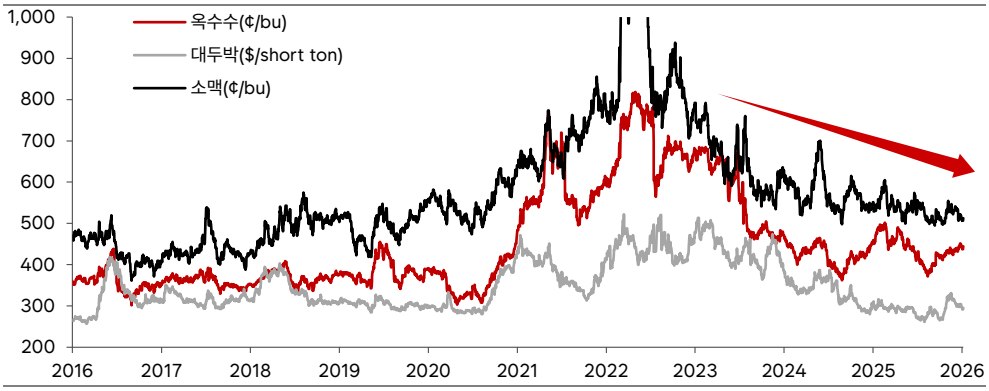
한편, 사료의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소맥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 생산국의 공급 확대가 지속되면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p.11 차트 참조). 단기적인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사 제품 원가에 안정성을 더해주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지육돈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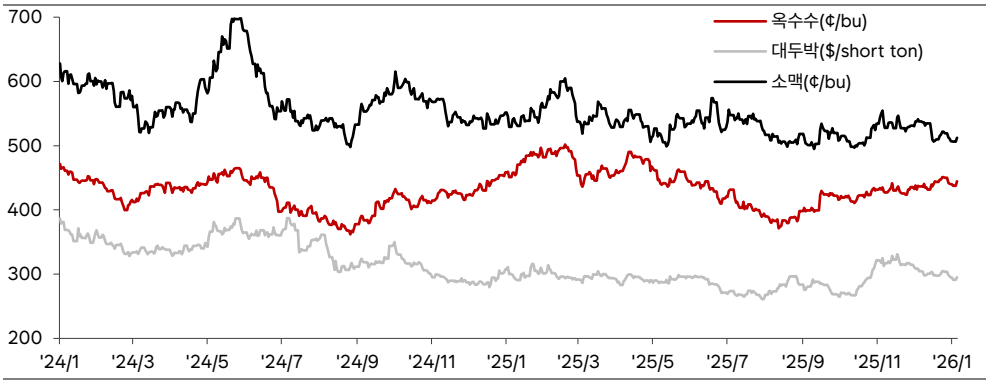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원재료 선물 가격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원재료 선물 가격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M&A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 적극 공략

M&A를 통해 사료첨가제 사업 강화 중. 특히 데브니쉬를 통해 미국사장 적극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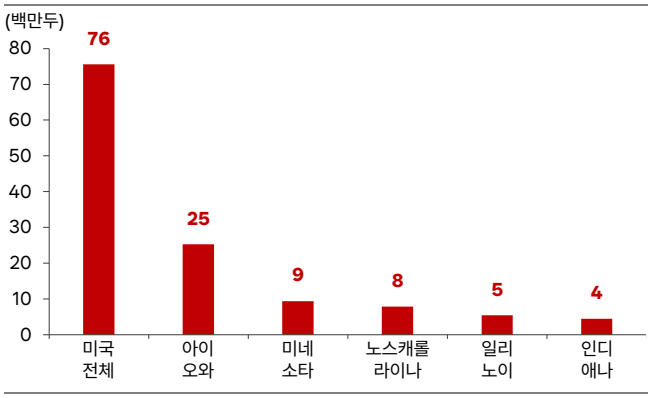
이지바이오가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업 구조를 사료첨가제 중심으로 재편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 전반이 단순한 사육두수 확대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사료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사료첨가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2024년 북미 사료첨가제 기업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동사는 거대 축산 시장인 미국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외형 성장과 사업 구조의 전환을 함께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4년 이지바이오는 북미지역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데브니쉬를 약 880억원에 인수하여 2025년 3분기 기준 98.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데브니쉬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124억원으로 데브니쉬 제외 이지바이오의 영업이익 200억원의 약 62% 수준이다. 매출액은 2,182억원으로 데브니쉬 제외 이지바이오의 매출(1,662억원) 규모보다 크다.

데브니쉬는 북미 사료첨가제 기업으로,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두고 미국 내 4개 공장과 멕시코 내 1개 공장을 운영하며 북미 전역에 생산 및 영업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축종별 매출 비중은 돼지 32%, 닭 20%, 소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돼지 관련 사료첨가제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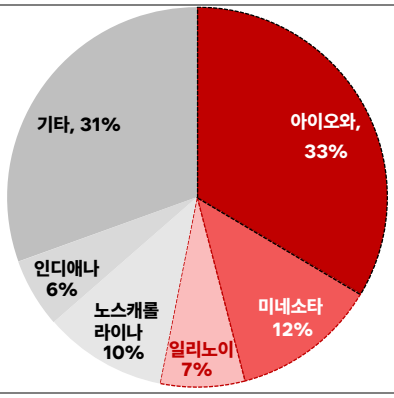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양돈 산업 규모가 큰 시장이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약 7,600만 두로, 국내 사육두수 약 1,100만 두 대비 약 7배에 달하는 규모다. 데브니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네소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의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양돈 축산 중심지이다. 특히 아이오와주는 미국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약 33%를 차지하는 최대 축산 지구이며, 미네소타 역시 약 12% 비중으로 아이오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축산 지역이다. 데브니쉬는 이처럼 미국 내 주요 축산 지역에 생산 및 영업 거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지역별 돼지 사육두수(25/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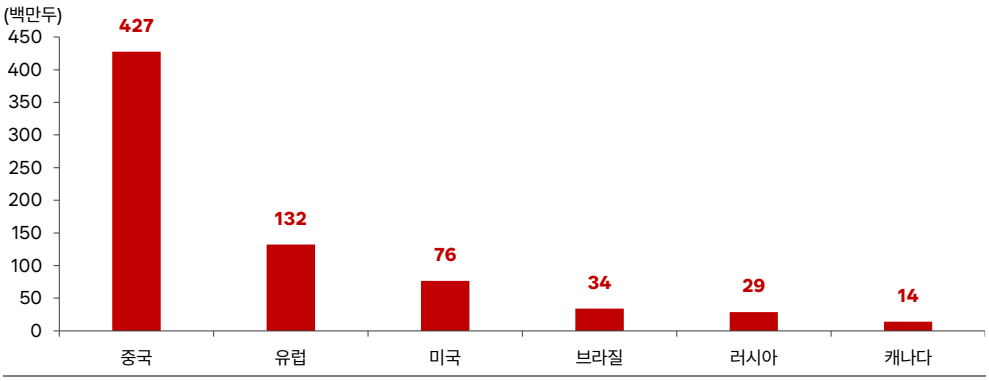
자료: USD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지역별 돼지 사육두수 비중(25/11월 기준)



주: 데브니쉬의 주요 사업 지역은 아이오와, 미네소타, 일리노이
자료: USD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가별 돼지 사육두수(25/4월 기준)



자료: Statist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데브니쉬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기능성 첨가제 사업 확대에 집중할 전망

데브니쉬의 주요 제품군은 프리믹스(범용 첨가제), EnteriMAX(자돈사료), DeviGuard(기능성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프리믹스가 가장 주력 제품이다. 프리믹스는 가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최적으로 배합하여 사료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범용 첨가제로 양돈, 양계, 반추 등 축종별로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제품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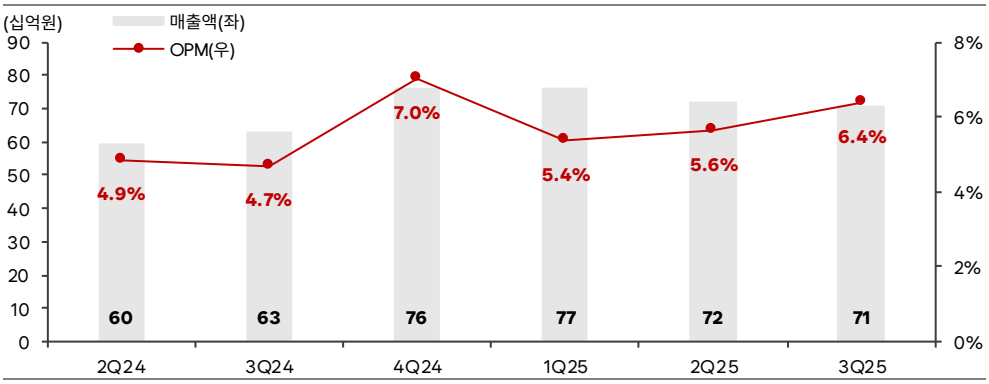
다만 범용 첨가제는 수요가 안정적이고 판매량이 높은 반면,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기능성 첨가제 대비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데브니쉬의 Premix 제품 판매 비중은 5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제품 믹스 구조로 인해 데브니쉬의 영업이익률은 5~6% 수준이다. 이는 데브니쉬 인수 이전 이지바이오 첨가제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약 1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데브니쉬는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자체 보유한 R&D 역량에 더해 이지바이오와의 R&D 조직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 사료첨가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지바이오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능성 사료첨가제 사업 강화를 전사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M&A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료첨가제 기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동시에, 계열사 간 기술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연계함으로써 기능성 사료첨가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이지바이오는 자회사 Pathway USA 법인을 통해 BioMatrix를 추가로 인수하였다. BioMatrix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다당류 코팅 기술(Polysaccharide Coating Technology)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기존 지방 코팅 방식 대비 사료 섭취 이후 위장관 내에서 영양소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사료 내 핵심 성분이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체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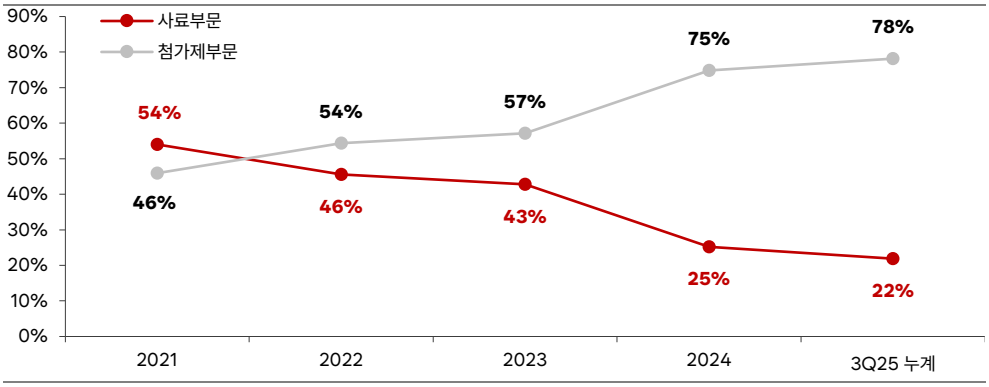
특히 BioMatrix는 2023년 이지바이오의 주력 기능성 첨가제인 리피돌(Lipidol)에 BioMatrix 코팅 기술을 적용한 '리피돌 프로젝트'를 출시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사료첨가제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이지바이오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지속함으로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능성 사료첨가제 기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데브니쉬 분기별 실적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사업부별 매출비중 추이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4년 실적 리뷰

데브니쉬 인수를 통해 이지바이오 외형 크게 확대

2024년은 이지바이오에 있어 사업 구조 전환이 본격화된 해였다. 북미 사료첨가제 기업 데브니쉬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북미로 확장했고, 이에 따라 외형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24억원을 기록해 YoY 57% 성장하였다. 이 중 데브니쉬의 매출액은 2,182억원, 영업이익은 124억원으로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2 2025년 및 2026년 실적전망

2025년 데브니쉬 연간 실적 온기반영, 2026년 데브니쉬 인수 시너지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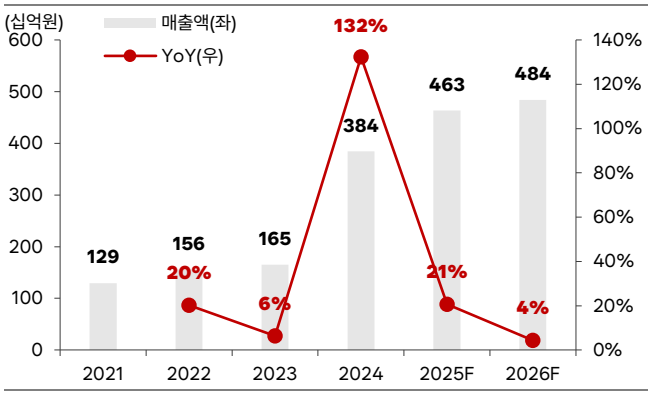
이지바이오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169억원,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각각 YoY 10%, 26% 성장했으며, 2025년 매출액은 4,635억원, 영업이익은 419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0.6%, 29.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 자회사 데브니쉬의 실적이 2024년에는 10개월치 반영되었으나 2025년에는 온기 반영될 예정인 점과, 2) 데브니쉬 인수 이후 조직 안정화와 전사적 비용 효율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3) 기능성 첨가제 매출 확대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회사 데브니쉬의 2025년 2분기와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86억원으로 YoY 46%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431억원으로 YoY 16% 성장하였다. 특히 3Q25 누적기준 영업이익률은 6.4%로 전년동기대비 1.2%p 개선되었으며, 분기별 영업이익률은 2025년 1Q 5.4%에서 2Q 5.6%, 3Q 6.4%로 QoQ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4Q25에도 미국 내 돼지사육 두수 증가 영향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사료 첨가제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업이익률도 QoQ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2024년 자회사 Pathway의 인력을 30% 수준 감축하면서 조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이다. 3Q25 누적 매출액은 133억원, 순이익은 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9%, 순이익은 흑자전환(+21억원)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2025년 Pathway 법인 턴어라운드에 따른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4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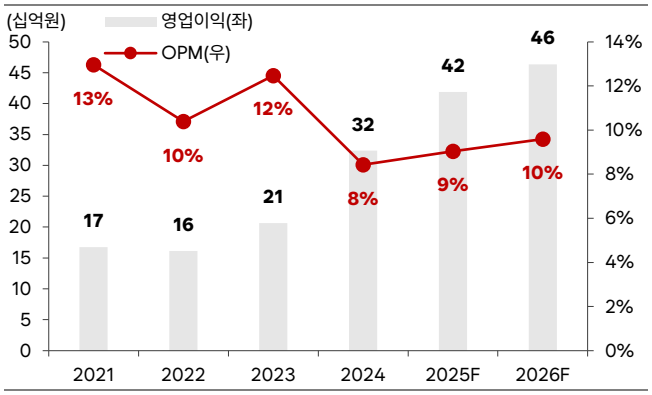
2026년은 자회사 데브니쉬 편입 이후 구축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우호적인 축산 가격과 곡물가 환경 하에서 범용첨가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는 기능성첨가제 사업 확대를 위해 1) 최근 BioMatrix를 인수하는 등 M&A를 통해 기능성 첨가제 포트폴리오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2) 데브니쉬가 보유한 R&D 역량에 이지바이오와의 R&D 조직 협업을 결합해 기능성 사료첨가제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3) 데브니쉬의 영업 인력 확충을 통해 미국 내 영업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며, 2026년 이지바이오 매출액은 4,836억원, 영업이익은 464억원(OPM +0.6%p YoY)으로 각각 YoY 4.3%,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지바이오 연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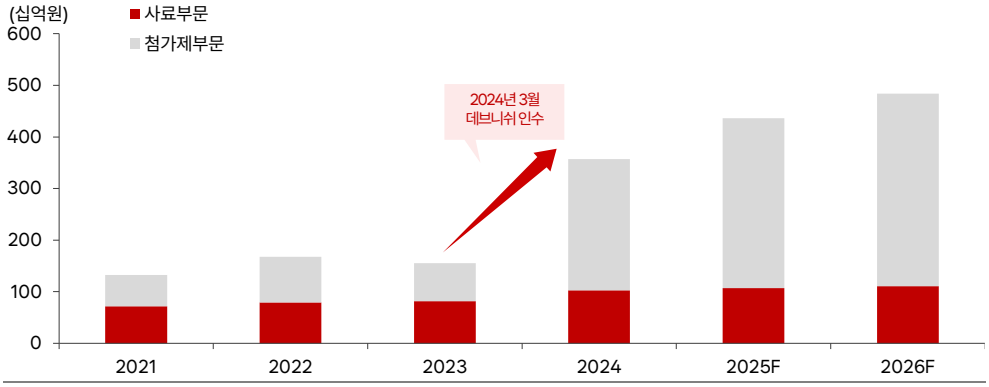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연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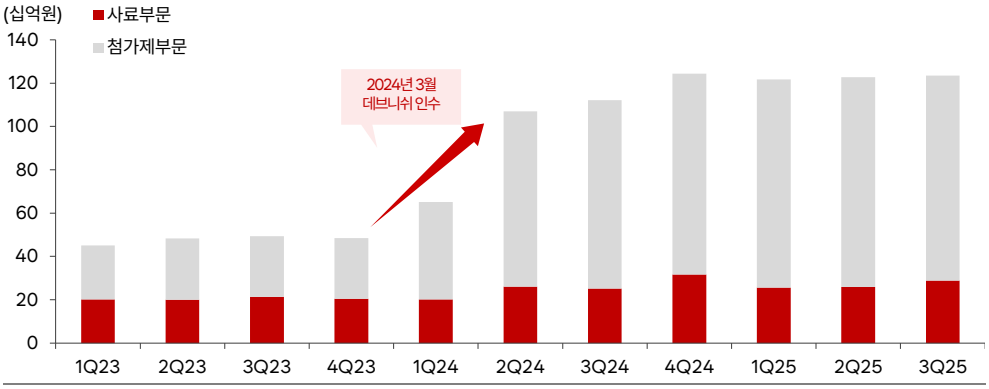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사업부별 연간 매출 추이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사업부별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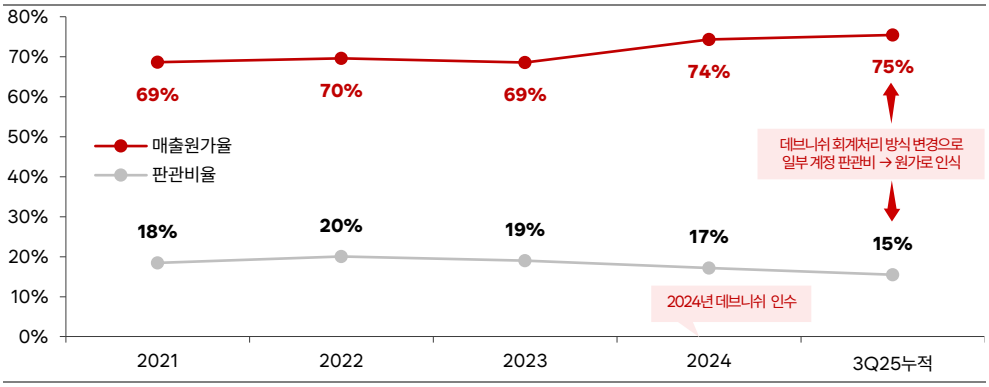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연간 실적 (단위: 십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56	165	384	463	484
(YoY)	20.2%	6.3%	132.4%	20.6%	4.3%
사료부문	79	82	103	107	111
첨가제부문	94	109	306	383	401
매출총이익	47	52	98	114	121
(YoY)	30.4%	31.5%	25.6%	24.5%	25.1%
영업이익	16	21	32	42	46
(YoY)	-3.7%	27.7%	57.0%	29.2%	10.7%
영업이익률	10.4%	12.5%	8.4%	9.0%	9.6%
세전이익	12	20	26	32	41
지배주주순이익	9	16	20	23	29
(YoY)	-16.0%	70.2%	26.1%	16.2%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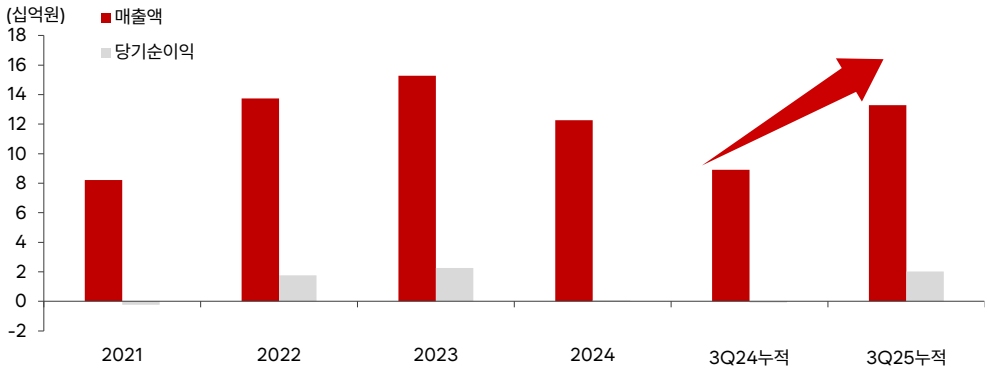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매출원가율 및 판관비율 추이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athway 연간 실적추이



자료: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년 PER 6.6배 수준으로 저평가

이지바이오 2026년 PER 6.6배 수준으로 Peer 기업 대비 저평가

당사 추정 기준 이지바이오의 2025년 PER은 8.5배, 2026년 PER은 6.6배이다. 동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사료 테마주 강세 국면에서 PER이 20배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주가 조정을 거치며 PER 6배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에는 7~10배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주요 글로벌 사료첨가제 Peer 기업들의 2026년 컨센서스 기준 평균 PER은 약 15.6배 수준으로, 이지바이오의 현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Peer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Bluestar Adisseo(중국)와 Phibro Animal Health(미국)는 모두 사료첨가제 전문 기업으로, 사업 구조 및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유사한 기업으로 판단한다.

이지바이오 PER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할인율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주가수준은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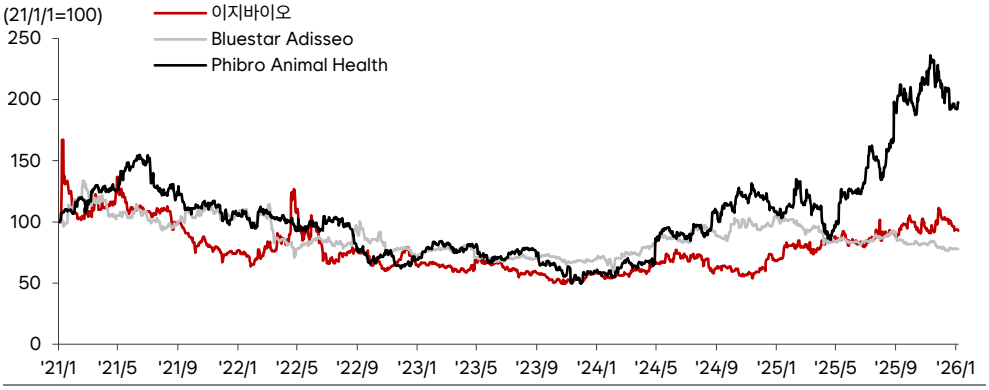
Bluestar Adisseo는 전 세계적으로 액상 및 분말 형태의 메티오닌(Methionine)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 중 하나로, 주력 제품군인 'Performance Products'를 통해 가금류 및 양돈 시장에 필수 아미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Phibro Animal Health는 동물 의약품 및 영양 관리 전문 기업으로,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 사료첨가제(Medicated Feed Additives, MFA)와 백신 분야에서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2026년 예상 PER은 각각 18.1배, 13.1배 수준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이지바이오의 현재 주가 수준은 글로벌 사료첨가제 Peer 대비 할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비교 기업들은 이지바이오 대비 영업이익 규모와 시가총액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단순한 멀티플 비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규모 및 시장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지바이오에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동사는 안정적인 자돈사료 사업을 기반으로 한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Devenish 인수를 통해 사료첨가제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까지 확대되며 사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 사

료 기업으로서 적용되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Peer 기업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Eiko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지바이오 PEER 실적 Table (단위: 십억원)

구분		이지바이오	Bluestar Adisseo	Phibro Animal Health
티커		353810	600299 CH Equity	PAHC US Equity
종가 (1/7)		5,790 원	9.09¥	39.43$
시가총액 (1/7)		191	6,017	2,391
매출액	'24	384	3,175	1,518
	'25F	464	3,633	2,185
	'26F	484	3,778	2,265
영업이익	'24	32	320	80
	'25F	42	416	292
	'26F	46	394	306
OPM(%)	'24	8.4	10.1	5.2
	'25F	9.0	11.4	13.4
	'26F	9.6	10.4	13.5
지배주주순이익	'24	20	246	72
	'25F	23	278	167
	'26F	29	308	185
PER(배)	'24	7.3	27.9	281.3
	'25F	8.5	18.8	14.4
	'26F	6.5	18.1	13.1
PBR(배)	'24	1.7	2.2	2.6
	'25F	1.9	1.5	4.4
	'26F	1.6	1.4	3.5
ROE(%)	'24	26.7	7.9	17.8
	'25F	24.7	8.0	34.1
	'26F	26.8	8.7	29.0

주: 1) 해외기업 수치 원화로 환산(환율 1/7 기준), 2) 25,26년 추정치는 시장 컨센스 기준(이지바이오는 당사 추정)

자료: Fnguide, Eiko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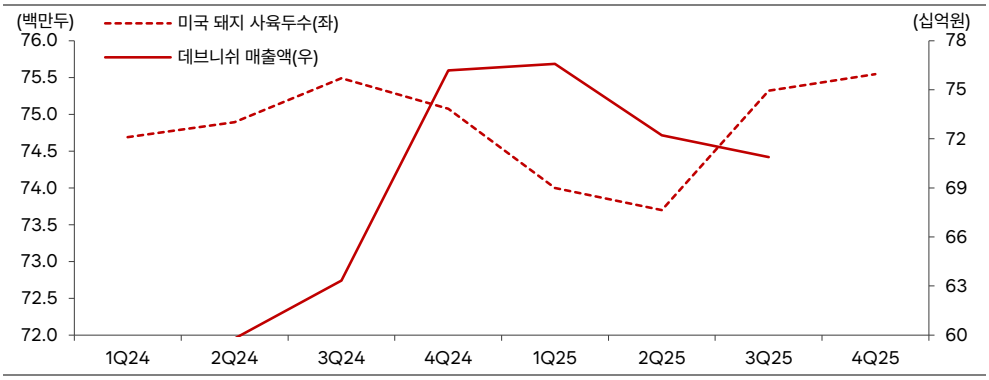
리스크 요인

전방 축산 시황의 변동성

이지바이오는 양돈·양우 등 전방 축산 산업의 시황 변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며 돼지고기 수출 감소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축산 농가의 사육 수요가 약화되면서 미국 내 돼지 사육두수는 1Q25 7,400만두(QoQ -1.4%), 2Q25 7,370만두(QoQ -0.4%)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범용 첨가제 수요가 둔화되면서 판가 하락이 발생했으며, 데브니쉬의 매출 역시 2Q25 722억원(QoQ -5.7%), 3Q25 709억원(QoQ -1.9%)으로 분기 기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범용첨가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브니쉬의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전방 축산 시황 변동은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지바이오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제품 믹스를 개선함으로써, 전방 축산 시황 변화에 대한 실적 민감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성 사료첨가제는 범용 첨가제 대비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전가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미국 돼지사육두수 vs 데브니쉬 매출액 추이 비교



자료: USDA, 이지바이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556	1,654	3,843	4,635	4,836
증가율(%)	20.2	6.3	132.4	20.6	4.3
매출원가	1,083	1,134	2,859	3,499	3,624
매출원가율(%)	69.6	68.6	74.4	75.5	74.9
매출총이익	473	520	985	1,136	1,213
매출이익률(%)	30.4	31.5	25.6	24.5	25.1
판매관리비	311	314	661	718	749
판관비율(%)	20.0	19.0	17.2	15.5	15.5
EBITDA	199	243	399	536	558
EBITDA 이익률(%)	12.8	14.7	10.4	11.6	11.5
증가율(%)	1.7	22.1	64.0	34.2	4.1
영업이익	162	206	324	419	464
영업이익률(%)	10.4	12.5	8.4	9.0	9.6
증가율(%)	-3.7	27.7	57.0	29.2	10.7
영업외손익	-48	-17	-64	-101	-45
금융수익	29	47	114	113	115
금융비용	57	45	139	121	121
기타영업외손익	-19	-19	-39	-93	-39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6	11	4	4	4
세전계속사업이익	120	201	264	321	422
증가율(%)	-14.7	67.4	31.4	21.8	31.3
법인세비용	26	40	65	82	108
계속사업이익	93	161	199	239	31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93	161	199	239	314
당기순이익률(%)	6.0	9.7	5.2	5.2	6.5
증가율(%)	-13.8	72.3	23.6	20.0	31.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91	155	196	228	299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1,073	1,196	2,190	2,185	2,557
현금성자산	399	291	599	391	710
단기투자자산	15	410	607	607	607
매출채권	211	218	417	503	525
재고자산	288	259	536	646	674
기타유동자산	160	18	32	39	40
비유동자산	505	525	1,410	1,305	1,214
유형자산	349	344	646	582	528
무형자산	66	69	661	608	567
투자자산	85	105	89	100	103
기타비유동자산	5	7	14	15	16
자산총계	1,578	1,720	3,600	3,490	3,770
유동부채	851	719	1,278	1,542	1,571
단기차입금	618	463	571	720	720
매입채무	106	106	308	371	387
기타유동부채	127	150	399	451	464
비유동부채	199	339	1,435	888	891
사채	100	300	200	200	200
장기차입금	67	0	1,170	610	610
기타비유동부채	32	39	65	78	81
부채총계	1,050	1,059	2,712	2,429	2,462
지배주주지분	500	628	840	1,001	1,234
자본금	34	34	34	34	34
자본잉여금	214	215	145	145	145
자본조정 등	-15	-15	-58	-58	-5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8	105	105	105
이익잉여금	262	386	613	775	1,008
자본총계	528	662	888	1,061	1,30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1	337	258	267	375
당기순이익	93	161	199	239	314
유형자산 상각비	34	32	53	64	54
무형자산 상각비	4	5	22	53	40
외환손익	15	2	7	7	7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22	152	-49	-76	-19
기타	-5	-15	26	-20	-2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	-413	-1,011	-16	-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2	19	-753	-12	-3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0	-19	-42	-19	-19
기타	13	-413	-216	15	1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79	-34	1,048	-476	-66
차입금의 증가(감소)	214	-199	1,123	-410	0
사채의증가(감소)	100	20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26	-26	-34	-66	-66
기타	-9	-9	-41	0	0
기타현금흐름	-11	2	13	17	17
현금의증가(감소)	192	-108	308	-208	320
기초현금	207	399	291	599	391
기말현금	399	291	599	391	710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15.1	8.0	7.3	8.5	6.6
P/B(배)	2.8	2.0	1.7	1.9	1.6
P/S(배)	0.9	0.7	0.4	0.4	0.4
EV/EBITDA(배)	9.1	5.7	6.0	5.0	4.4
배당수익률(%)	1.9	2.8	4.8	3.4	3.3
EPS(원)	267	455	573	683	904
BPS(원)	1,461	1,836	2,456	3,027	3,731
SPS(원)	4,550	4,837	11,240	13,909	14,619
DPS(원)	75	100	200	200	200
수익성(%)					
ROE	19.7	27.6	26.7	24.7	26.8
ROA	6.8	9.8	7.5	6.7	8.6
ROIC	15.8	20.5	21.9	18.5	20.7
안정성(%)					
유동비율	126.2	166.3	171.4	141.7	162.7
부채비율	198.8	160.0	305.4	229.1	188.2
순차입금비율	77.2	18.5	100.3	64.9	28.3
이자보상배율	9.4	6.4	3.6	5.8	6.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1.0	1.4	1.3	1.3
매출채권회전율	8.3	7.7	12.1	10.1	9.4
재고자산회전율	5.9	6.0	9.7	7.8	7.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지바이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13	글로벌 사료첨가제 기업으로의 전환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